

# '프로듀스X101' 조작시비 오디션 서바이벌의 명암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보이그룹 육성 프로젝트 '프로듀스X101'이 순위조작 의혹과 관련,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지속하려면 신뢰성 회복이 불가피하다고 제작진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조작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엠넷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이던 '슈퍼스타K' 시리즈를 비롯, 타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도 공정성 시비로 도마 위에 자주 올랐다.

## ◇서바이벌에 '완벽한 리얼리티 없다'...객관성이 신뢰를 잃었을 때

제작진의 편집과 의도가 반영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완벽한 리얼리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청자, 팬들도 이런 사실은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듀스X'의 가장 큰 실수는 객관적인 숫자에서 오류를 발견하게끔 만든 것이다. 팬들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투표 조작 사건은 일종의 채용 비리이자 취업사기"라며 '프로듀스X101' 조작 의혹에 가세했다.

하 의원은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749.442의 배수"라고 지적했다. "주변 수학자들에게 물어보니 1등에서 20등까지 20개의 이런 숫자 조합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0에 가깝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투표결과가 이미 프로그램화돼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이번 '프로듀스X'의 최종회 투표는 건당 1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투표였다. 가요계 관계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스토리라인을 미리 짜는 루머도 있다"면서 "이런 소문들이 누적돼 불공정하다는 의심이 팽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숫자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 시청자들이 폭발한 것"이라고 봤다.

## ◇투표 시스템 자체가 문제, 결국 상처는 연습생 몫

일각에서는 투표도 순위는 가리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긴장감을 조성, 시청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

청몰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실력을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다.

하지만 학벌과 서열 등 한국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민낯이 노골적으로 포장된 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아울러 투표 경쟁이 과열돼 팬들끼리 물질적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생겼다. '프로듀스X' 시리즈의 일부 팬덤은 자신이 지지하는 연습생에게 투표를 해주는 대가를 상대로 고가의 경품을 내걸어 시비가 일기도 했다. "실력이 아닌 인기로 데뷔 멤버가 정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논란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연습생들이다. 엑스원 멤버들은 투표 조작으로 데뷔한다는 의심을 안고 살아야 하고, 탈락자들은 피해자라는 트라우마를 안고 다시 연습실을 들락날락해야

한다. 무엇보다 "데뷔를 할 친구들이든, 못하게 된 친구들이든 모두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관계자의 말이 이들 연습생들의 상황을 대변한다. 엑스원은 팀 전체 활동 2년6개월, 개별 소속사와 병행하는 활동이 2년6개월로 총 5년 간 계약이 맺어졌다.

'프로듀스X' 시리즈는 엠넷의 대표 콘텐츠가 됐다. 쉽게 내버릴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엠넷이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신력 있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뒤늦게나마 나선 이유다. 가요계 관계자는 "이번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해야 엑스원 활동이 원활하고, 프로그램도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 이효리 "핑클 시절, 못한 말 있다"...다들 눈물 글썽



그들 '핑클'의 이효리(40)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28일 방송되는 JTBC 예능물 '캠핑클럽'에서는 경주 화랑의 언덕에 자리를 잡은 핑클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캠핑 2일차 저녁 식사를 마친 멤버들은 모닥불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이효리가 "핑클 시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느냐"고 묻는다. 멤버

들은 잠시 옛 추억에 잠겼고, 개인 활동을 하며 느낀 감정을 고백한다. 이효리는 속마음을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 다른 멤버들도 공감하며 역시 눈물을 글썽였다.

이날 멤버들은 찜뽕 호흡을 자랑했다. 저녁 메뉴로 구이 요리를 택했다. 옥주현(37)을 주축으로 업무를 분담했고, 빠르게 저녁 준비를 했다. 특히 옥주현은 고기를 먹지 않는 이효리를 위해 생선 요리를 준비했고, 뛰어난 맛에 멤버들도 감탄했다.

'캠핑클럽'은 14년 만에 뭉친 핑클이 캠핑카를 타고 여행하는 모습을 그린다. 여행을 통해 떨어져 있었던 마음을 나누고, 데뷔 21주년 기념 무대에 설지말지를 결정한다.

## 1년만에 뭉친 김태호PD·유재석 '놀면 뭐하니?' 시청률 4.6% 출발

### MBC TV 새 예능 첫 방송

김태호(44) PD와 MC 유재석(47)이 1년 만에 뭉친 MBC TV 새 예능 '놀면 뭐하니?'가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첫 방송한 '놀면 뭐하니?'의 시청률은 4.3%(1부), 4.6%(2부)다.

'놀면 뭐하니?'는 평소 스케줄이 없는 날에 "놀면 뭐하니?"고 외치는 유재석에게 릴레이 카메라를 맡기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두 사람이 MBC TV 간판 예능 '무한도전' 시즌 중방 후 1년 만에 의기투합해 주목받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유재석에게 전달된 카메라 2대에 담긴 이야기가 공개됐다. 앞서 '릴레이 카메라'를 통해

인연을 맺은 유재석·조세호(37)·태항호(36)·딘딘(28)·유노윤호(33)·데프콘(42)은 조세호의 집에 모여 시청자 모드로 영상을 즐겼다.

유재석은 하하(40)와 함께 자신의 카메라를 유희열(48)에게 넘기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유재석과 유희열은 예능인과의 음악인으로서 현실적인 고민을 나눴다. 유희열은 카메라를 정재형(49)에게 전달할 것을 정승환(23)에게 부탁했다. 정재형이 카메라를 넘긴 사람은 모범 장윤주(39)다.

하하의 카메라는 양세형(34)을 거쳐 유세윤(39)에게 전달됐다. 양세형은 카메라를 넘겨주기 위해 유세윤을 만나 고민을 털어 놓았고, 유세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 쥐** ▶ 쥐띠 쓸데없이 한 달이 문제 생긴다. 하늘밖에 모르는 일을 누군가 알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 북쪽 7, 8, 9성씨에게 사정 말하면 수습해 줄 듯.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이치 잊지 말라. 마음 편해야 모든 것이 편하다. 붉은색이 안정 준다.
- 소** ▶ 소띠 비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성격에 부부간 일을 친구에게 말해서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 큰 소리가 날 듯 하니 집담은 금물이다. 받을 것 못 받고 줄 사람은 많으니 한숨뿐이구나. 쥐, 말, 닭띠를 멀리하라.
- 호랑이** ▶ 호랑이띠 때 아닌 까치소리로 반가운 소식 듣는다. 때 아닌 수입도 올리니 오랜만에 기분 풀리는 하루. 기분 좋아 과속하면 더 몇 배 슬퍼지는 오후 돼니 조심하라. 늦은 길 조심. 4, 8, 12월생 받을 것 득족하라. 의욕 상실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태도 요구.
- 토끼** ▶ 토끼띠 취중에 하는 말이 백배로 효험이 있는 날이다. 공짜로 얻어먹고 꾸민 그 한마디가 그의 심중을 울려 더욱 친밀해질 듯. 연인의 마음도 열리는 날. 돼지, 범, 닭띠가 힘이 되어 줄 듯 하다. 1, 3, 4월생 언행으로 눈물날 듯.
- 용** ▶ 용띠 근면 성실한 태도로 주위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현재는 별 소득이 없을지라도 꾸준한 노력이 덕이 되어 승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연상, 연하와 인연되어 구설이 우려된다. 어려운 일은 친지와 의논이 좋다. 화합의 장을 열라.
- 뱀** ▶ 뱀띠 흐트러져 있던 재물이 모이는 격이며 직장인은 상사에게 칭찬도 받았다. 동쪽에 귀인이 있겠으니 언행 조심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킬 것. 5, 7, 12월생 사랑싸움 길면 안된다. 금융 투자는 길. 큰 욕심은 금물.
- 말** ▶ 말띠 관찰력과 투시력 만점이지만 용기가 부족하다. 망설임이나 중요한 일을 추진 못해 때를 놓칠 듯. 용기를 가지고 추진해 보라. 남과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들이밀 것. 애정은 일단 후회한 다음 다시 만나라. 친척하게 대처하라.
- 양** ▶ 양띠 지금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변에서 알아주는 오늘이다. 말없이 키워 온 야망이 곧 이뤄질 것이다. 1, 7, 9월생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있을 곳이 못된다. 북, 서쪽 사람 조언이 필요할 때. 처세 주의하고 한길 택함이 좋다.
- 원숭이** ▶ 원숭이띠 질투의 눈빛이 상대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경험을 하는 날. 굳게 닫은 그의 입을 열어 한다. 타인의 정보를 듣는 오늘 사업에 힘이 되겠다. 1, 3, 11월생을 잡아라. 놓칠 염려 있다. 변동하려면 속히 할 것. 서서히 운이 열린다.
- 닭** ▶ 닭띠 희생정신이 있어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당신을 누가 시비하라.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이상을 밀고 나가라. 만약 힘이 약하거든 7, 8, 9성씨와 상의하라. 두 가지 직업은 골치 아프다. 기혼자는 처가에 신경 쓰고 미혼자는 곧 배우자 찾게 된다.
- 개** ▶ 개띠 책임을 다하는 충성심을 상사가 알아서 당신의 깊은 속사정을 듣고자 하는 날이다. 그러나 사사로움에 속마음을 말하지 마라. 오늘 뿐이다. 겸손이 약이다. 답답한 마음에 응주는 금물. 2, 3, 12월생이 당신을 찾고 있다. 마음을 받아줄 것.
- 돼지** ▶ 돼지띠 실재없이 분주한 노력으로 주머니가 무거워진다. 사랑하는 사람 모르게 비상금을 챙겨라. 그 돈이 곧 쓰일 때가 다가온다. 선의의 거짓말은 무사통과 되는 날. 북, 서쪽에는 가지 마라. 지출만 생긴다. 2, 9, 10월생 냉감수 없는 격.

##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